

P-1

안성지역에서의 무발정 유우의 난소질환 발생현황

노상호^{1,2*}, 오창환¹, 안종호², 한기영^{1,2}

한경대학교 ¹동물생명자원학과, ²낙농기술지원센터

경기도 안성시의 죽산, 일죽지역 및 충북 진천군 광혜원 일대의 40여 개의 목장을 대상으로 200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직장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이용하여 젖소의 난소질환을 진단하였다. 진단은 2주 혹은 4주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ProstaglandinF2 α , GnRH, mineral-vitamin-complex, PRID™ (or CIDR™) 및 massage 등으로 처방 및 처치하였으며 처치 후 발정이 유도되면 인공수정을 실시하였다.

건유우포함 총 착유두수는 923두였으며 육성우는 총 두수에서 제외하였다. 진료대상우의 대부분은 분만 후 60일로부터 수개월까지 발정이 관찰되지 않아 난소검진을 실시한 것으로서 이중 난소이상으로 진단된 개체는 106두 (11.5%)였다. 의뢰된 총 106두의 개체 중 영구황체 64두 (60.4%), 난소위축 및 기능부전 30두 (28.3%), 황체성 낭종 7두 (6.6%) 및 난포성 낭종 5두 (4.7%)로 진단되었으며 치료 후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난소질환의 1차 치료 후 발정재귀율은 80.2% (85두; Group A), 재검 (2차이상) 후에도 난소상태가 변화를 보이지 않아 반복 치료한 후 발정이 재귀된 비율은 2.8% (3두; Group B), 1차진단 및 처치 후 난소상태의 변화 혹은 상이한 난소질환으로의 이행으로 인한 추가치료 후의 발정재귀율은 8.5% (9두; Group C) 및 무발정이 지속되거나 축주에 의해 임의로 도태에 이른 비율이 8.5% (9두; Group D)로 나타났으며 현재 발정이 재귀된 개체의 인공수정 후 수태율을 조사중에 있다. 난포성 낭종 및 황체성 낭종으로 진단된 개체는 모두 Group A에 속하여 다른 질환에 비해 낭종의 치료효과가 탁월하였으나 표본 수의 부족으로 인해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영구황체와 정상주기 중의 황체는 직장검사로서 감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조사에서 난소검진 시 정상주기 중인 것으로 판단된 개체는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나 영구황체로 진단된 개체의 일부는 미약발정

내지는 발정관찰의 미비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Group C의 소들은 1차 치료 후에도 무발정이 지속되어 재차 진단한 결과 난소상태에 변화가 생긴 개체들로 이는 치료 후 난소의 상태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외부로 인지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번식장해우의 관리에 있어 산후 발정발견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되며 미약발정에 의해 발정이 관찰되지 못한 경우 호르몬 요법 또는 발정발견도구의 사용 등 적절한 번식관리프로그램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는 영농조합법인 '동락회'의 2000년도 연구용역사업지원 (2000. 6.1-2001. 5.31)에 의해 수행되었음.